



CASE STUDY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새롭게 대화를 시작한 가족의 사례



INTRODUCTION

친구 혹은 직장 등 여러 인간관계와는 달리,
가족 사이에서는 유독 서로에게 서운함과 속상함을
표현하기 좀 더 쉽습니다.

나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듯
가족 역시 마찬가지지만,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생각
때문에 가끔 갈등 상황에서 대화가 아닌 짜증 섞인 감
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듯 다른 진단 결과를 보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
간을 가져보는 건 어떤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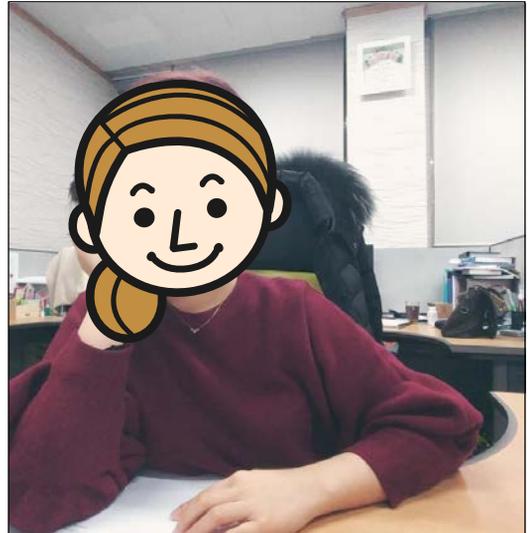
“우연히 접한 버크만 진단으로
제 자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버크만 진단을 통해
무뚝뚝했던 저희 가족이 서로를 아껴
주는 계기가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회사에서 우연히 접한 버크만 교육은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베이직 디브리퍼 과정 이수로 이어졌
습니다.

이 후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버크만 진단을 권유하며 시작한 디브
리핑은 벌써 60명이나 되었습니다.

버크만과 함께 변화한 가족!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BIRKMAN
Training Center

Birkman Basic Report

1. 대인관계 스타일

2. 일처리 방식

성격대로 일하지 않는다고?
강점행동, 스트레스 행동 완벽 분석!

버크만 진단 해설





무난무난 했던 우리 가족,
2년 전 남동생이 카페를 오픈 했고
부모님께서 이 일에 관여하시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특히 아버지와 남동생의 갈등이 깊
어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남동생의 사이를 중재하시다 지칠
때면 멀리 서울에 사는 딸에게 전화
하셔서 하소연 하는 일이 반복되었
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고,
대화에 지친 아버지는 딸인 저를 통
해 남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017년 크리스마스,
저는 가족들과 서로를 이해하는 특
별한 시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버크만 진단을 통해서요!

우리는 한 자리에 모여 앉아 그 동안
뒹어두었던 갈등에 대해 솔직한 대
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어요!





강렬한 All RED !

- ✓ 추진력, 실행력 1등
- ✓ 눈에 보이는 결과

하지만..?

- ✓ 참을성이 부족해요
- ✓ 감정에 무너져요

긍정에너지

All GREEN !

- ✓ 엄청난 사교성
- ✓ 동기부여는 나의 힘

하지만..?

- ✓ 계획대로의 진행은 조금 어려워요
- ✓ 자기방어적이죠

아빠와 남동생의 조직지향점도 한 몫 했습니다.
 LSG는 물론 일하는 방식까지 완전 반대였죠.
 아빠는 목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원하는 행동파라면, 남동생은 사람들과 어울려
 의사소통하는 설득파였던거죠.

그 동안 너무나 당연히 어긋날 수 밖에 없던 결과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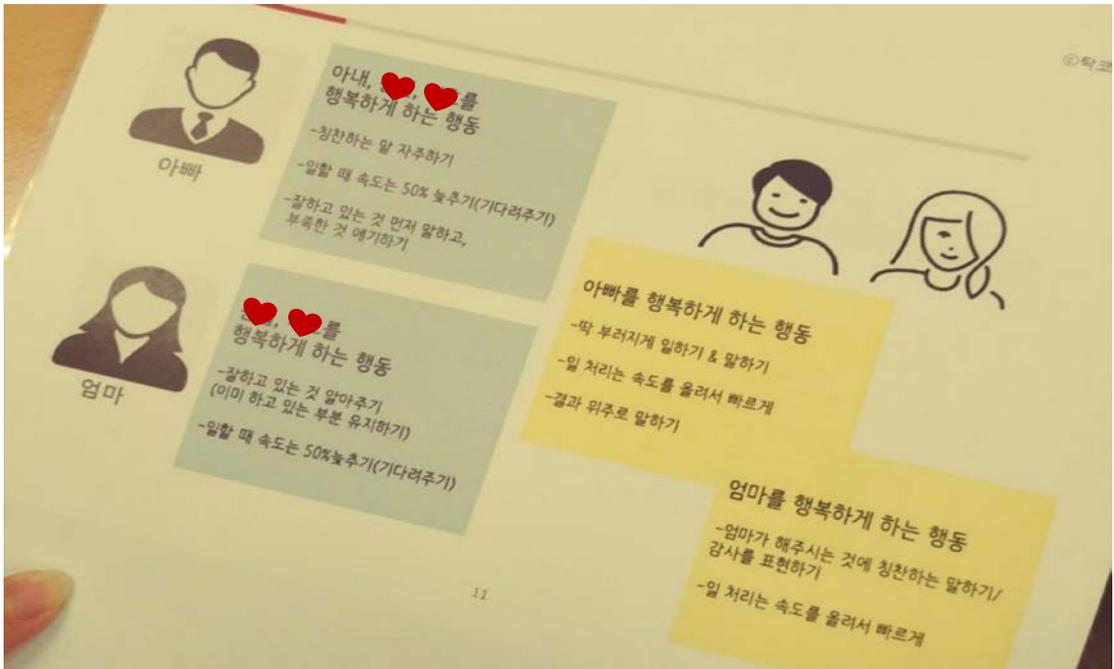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행복가족수업

저희 가족은 각자의 진단 결과를 읽고 비교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신과 다르거나 반대의 성향을 납득하기 힘들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대화법부터 고치기로 약속했죠.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말과 행동을 정리하고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우리 가족에게는 버크만 언어가 생기게 되었어요!

시작은 어색했지만, 지금은 서로를 기분 좋게 만드는 칭찬과 사랑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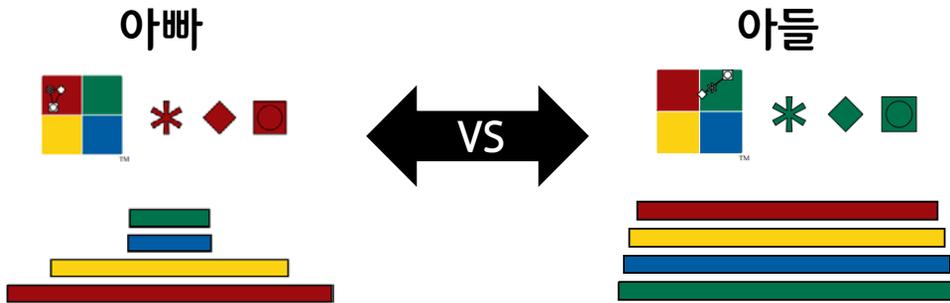
버크만을 통해 변화는 시작되었어요.
서로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분명히 제시해 준
버크만코리아에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잠깐!

버크만이 제시하는 꿀tip!



아빠의 LSG는 모두 R입니다. 흥미, 평소행동은 R의 한가운데 위치하지만, 욕구, 스트레스 지표는 R인 동시에 Y에도 근접해있죠. 조직지향점 역시 R->Y 순서로 신속한 결단력으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간단 명료하게 단순화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빠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빠른 결과를 원하는 성급함으로 인해 상대방의 방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든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죠. 이로서 상대방의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여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빠는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더 만들고, 아들의 생각과 방식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상기시켜주며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둘의 관계 개선에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의 LSG는 모두 G입니다. 흥미와 평소행동은 G에 위치하며 R에도 가깝죠. 하지만 욕구, 스트레스는 G의 특성이 강합니다. 조직지향점은 G->B 순서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하기를 좋아하면서 동시에 넓은 관점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기도 합니다. 판매와 마케팅에 최적화되어있는 아들의 강점이네요^^

하지만 늘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길 원하는 G답게 갈등의 상황을 겪을 때에는 무엇보다 감정이 쉽게 상하거나, 본인의 감정 분위기에 따라 문제점을 과장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감정보다는 “문제 해결” 즉,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아빠에게는 이런 부분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죠? 아들은 아빠가 의견을 제시할 때 감정적인 부분은 잠시 접어두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908호 버크만코리아
02-2676-0400
www.birkmankorea.co.kr

Copyright © 2018, Birkman Korea. All rights reserved.

Birkman and the Birkman logo are trademarks of Birkman International, Inc.
Photo attribution: Birkmankorea via photo is used with kind permission of Eun Sil Jang .

